

학교체육진흥회 소식지

Vol. 01
2021.03.

03 인사말

04 학교체육진흥회?

06 체육수업

14 학교스포츠클럽

20 학교운동부

22 학교체육 활동

28 학교체육툰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회
The Council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CONTENTS

2021.03.

02 Contents

03 인사말 조희연 이사장

04 학교체육진흥회? 학교체육진흥회 소개
학교체육진흥회 주요 사업

06 체육수업 온/오프라인 체육수업 사례_ 망포중, 포곡중, 전북사대부고
학생이 바라보는 체육수업

14 학교스포츠클럽 2020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2020 용인 학교스포츠클럽 온라인 챌린지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_삼성고

20 학교운동부 학교폭력, 학교운동부가 가야 할 방향_정재용
코로나 속 학교운동부_풍덕중

22 학교체육 활동 비대면 체육대회_옥길중
교내 임시체육_국원고

28 학교체육툰



학교체육진흥회

The Council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
지속적으로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체육진흥회 이사장 조희연입니다.

학생들에게 체육은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필요한 활동이자 매우 중요한 권리이며 미래 핵심 역량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 학생들은 국외 다른 나라에 비해 이런 중요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학령기에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평생 소양으로서 스포츠 리터러시를 준비시키는 일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8년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도교육청 및 대한체육회가 함께 힘을 모아 학교체육진흥회를 설립하였습니다. 학교체육진흥회는 다양한 교육사업과 연구를 통해 ‘운동하는 일반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목표로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체육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초, 중, 고등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이들이 더욱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교체육진흥회는 설립 이후 체육수업의 질 향상, 학생선수의 체계적인 학사·진학 관리,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지원, 체육교사 및 운동부 지도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체육 전담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할 것이며 학교체육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체육진흥회 이사장 조희연

학교체육진흥회 소개

학교체육진흥회는 학교체육 정책에 발맞춰 각종 기관과의 협력, 교육(현장)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혁

2018. 10. 26. 학교체육진흥회 창립총회, 제1대 조희연 이사장 취임
2019. 07 대한민국 체육교사 축전
2019. 07 초등교원 생존수영교육 직무연수
2019. 10 제12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2019. 10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2019. 11 학교체육대상
2020. 03 온라인 수업 지원체계 구축(자료 개발 및 공유)
2020. 08 온라인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2020. 11 대한민국 체육교육 축전
2020. 12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설립 목적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체육 문화를 조성한다.
체육수업, 학교스포츠 활동, 학교 운동부의 건전한 선순환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생애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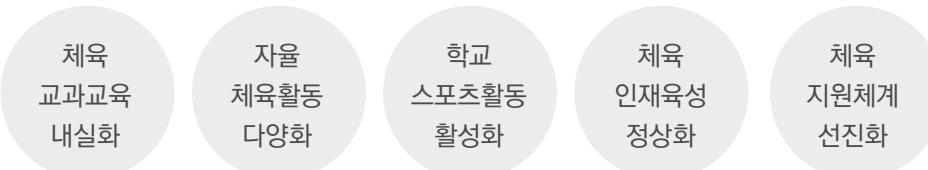
비전



추진전략



중점과제



2021년 학교체육진흥회 주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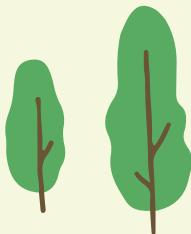
● 학생 스포츠 기자단 시범운영_ 4~12월

1. 중·고등학생 학교체육 기자단 운영
2. 직업 체험 및 전문교육 제공



● 초·중등 체육수업 지원_ 3~10월

1. 초·중등 온라인 수업자료 개발 및 공유



●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_ 4월



● 학생선수 진로 진학 상담_ 5~6월(상담), 9~10월(설명회)

1. 온라인 학생선수(경력 전환) 진로 진학 상담
2. 체육특기자 진학 전략 설명회
3. 진로 진학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2021 대한민국 체육교육 축전_ 7월

1. 대한민국 체육교육 축전 개최
2. 체육수업 환경 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
3. 체육교육 우수사례 자료집 발간

● 스포츠교육한마당_ 8월

1. 스포츠교육한마당 개최(공동개최: 한국스포츠교육학회)
2. 학교체육 성과 발표, 국내외 체육 교육 연구 동향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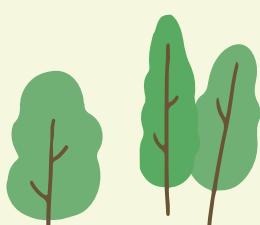
●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컨설팅_ 5~9월

1.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 설명회 개최 및 컨설팅 지원
2.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_ 11~12월

1.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최
2.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운영 평가



● 학교체육대상_ 12월

1. 학교체육대상 분야별 공모 및 시상식 개최
2. 학교체육대상 우수사례집 발간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는 스포츠 인포그래픽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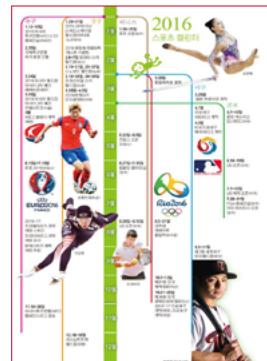
경기 망포중학교 교사
이언영

대부분의 교사가 2020학년도가 시작하기 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면밀히 준비하지 못했던 온라인 수업과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수업 계획을 다시 구성하여야 하는 상황에 허탈과 수고가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처음이 아닌 상황...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다리며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연결하여 진행할 수 있는 수업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1. 인포그래픽 소개

가. 1차시 인포그래픽의 개념과 사례 (개념 알아가기-1)

인포그래픽은 ‘information+graphic’의 합성어로, 많은 양의 정보를 차트, 그래픽, 다이어그램, 캐릭터 등 다양한 표현방식을 이용하여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형태의 디자인을 일컬음. 스포츠 분야에서 활용된 인포그래픽 예시로 수업을 구상함.



▲ (예시) 스포츠 캘린더



▲ (예시) 스포츠로 칼로리를 태우다.

나. 2, 3차시 인포그래픽의 다양한 표현방식 (개념 알아가기-2)

▲ 2, 3차시 영상 제작 모습 / 4차시 대면 수업 안내 (준비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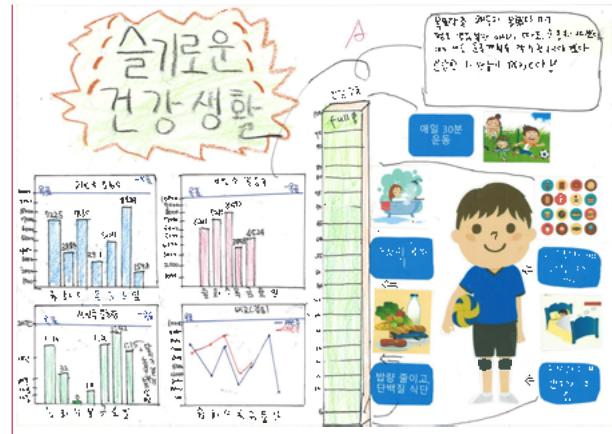
다. 4차시 대면 수업 안내

2. 스포츠 인포그래픽 생각 열기 (계획서 작성 및 작품 완성)

가. 대면 수업에서 스포츠 인포그래픽 생각 열기

나. 비대면 수업에서 계획서 작성 및 작품 제작

- 대면 수업 후 비대면 수업주간에 계획서 작성을 구상하도록 하였으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통하여 피드백을 실시함.
- 학생들이 구상한 주제와 정보를 이용하여 두 차시 동안 계획서 작성 및 작품을 제작함.



▲ 주제: 슬기로운 나의 건강생활 (계획서 & 스포츠 인포그래픽 완성작-남학생)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연속성

대부분의 선생님께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별개의 수업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수업 준비 측면에서 분명 교사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게 된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체육 교사는, 아이들이 원하는 배움에 대한 갈증과 움직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해답을 찾기 위해 끝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 스포츠 인포그래픽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체육수업에서 배울 수 있는 스포츠 문화, 다양한 스포츠 상식과 지식, 스포츠에 대한 지적 접근 등 인지적, 감성적 영역이 더욱 성장하리라 보며, 현 상황의 수업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블렌디드 러닝 (대면 & 비대면)에 따른 배구 수업

글.
용인 포곡중학교 교사
이정석



코로나19로 작년 전국 모든 교사가 초임 교사가 되어 버렸다. 1학기 조금만 지나면 학생들이 등교하겠다는 막연한 생각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저글링 수업과 대면 수업 시 농구 수업을 계획 및 적용하였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2학기 배구 수업을 고민하고 적용한 사례를 나누고자 한다.

코로나19 수업환경

경기도 지역의 경우 온라인 개학과 동시에 원격수업이 시작되었고, 점점 상황이 안 좋아져 전교생의 1/3이 등교하는 일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격수업 비중이 확대되었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수업 = 진도, 대면 수업 = 수행평가” 공식이라는 웃지 못하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또한 원격수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수업의 질에 대한 고민(수업 시간 중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이 깊어지고, 콘텐츠 및 과제 제시형 수업보다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강조되었다.

1학기 수업에 대한 고민

1학기 원격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중 가장 큰 2가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첫째,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것인가?

둘째, 대면, 비대면 수업에서 어떻게 평가를 연계할 것인가? 성장중심평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비교하자면 원격수업이 2배 이상 힘들다. 첫째, 차시뿐만 아니라 매시간 체계적인 수업 계획이 없다면 학생들 참여가 떨어진다. 둘째, 매시간 똑같은 내용 또는 비슷한 내용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흥미를 잃어버린다.]

2학기 수업 :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

1학기 새로운 환경에서 겪은 수업 시행착오를 통해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첫째, 등교수업 시 가장 먼저 친한 학생들끼리 모둠을 구성하였다. 1학기 실시간 쌍방향 소그룹 활동 시 화면을 꺼서 깜깜하고 작은 화면, 학생이 없는 바탕화면 등 조용한 가운데 친한 학생들끼리 개인 채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나마 잘하고 있는 소그룹 역시 대화보다는 서로 채팅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다. 모니터 안 작은 공간이지만 학교에서처럼 시끌벅적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친한 학생들과 모둠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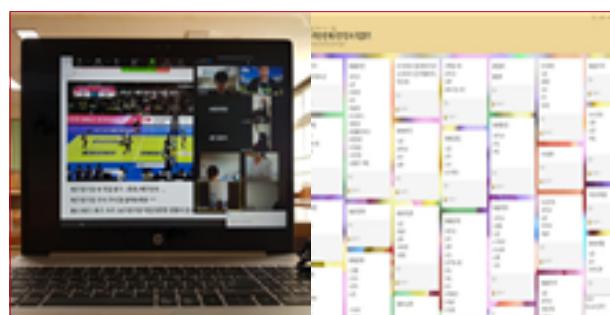
둘째, 학기 초 “비대면 수업 = 진도, 대면 수업 = 수행평가” 공식에서 벗어나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에 중심을 둔 수업을 고민하였다.

2학기 배구 수업

배구 수업 계획 시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누어 “배구 알아보기 - 기초기능 - 배구 모둠 경기 - 배구 경기 방송중계” 순으로 구성하였다. 수업 구성의 전제 조건은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의 연계, 학생 성장중심평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1. 배구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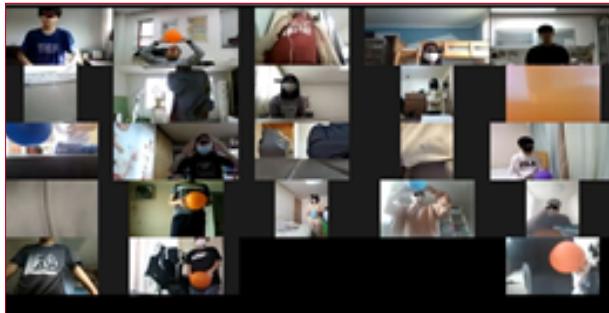
- 가. 1차시 퀴즈로 알아보는 배구, 2차시 배구 경기장 속 직업 찾기 수업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 나. 3차시~5차시 배구 수업은 동료 교사와 함께 제작한 배구 경기 방법 및 규칙, 배구 기초기능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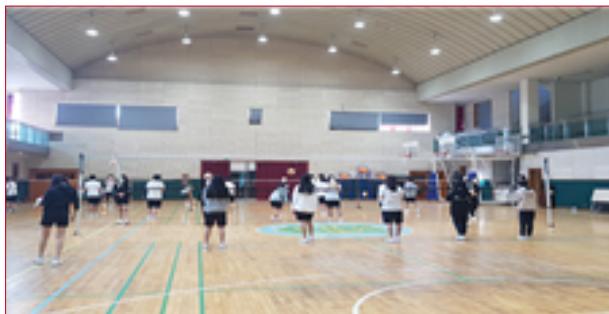
▲ 배구 용어 빙고게임

2. 배구 기초기능

비대면 실기 수업에 대비하고자 풍선을 활용하여 배구 기초 기능 동작을 익히고, 대면 수업 시 배구공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공과 친해지기, 기초기능 익히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 실시간 쌍방향 수업 – 기초기능



▲ 등교수업 – 공과 친해지기, 패스

3. 모둠별 배구 경기

이론 수업 시 학습한 배구 경기 방법 및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단계별 배구 경기를 진행하였으며, 비대면 수업에서는 모둠별 배구 경기 방법 및 규칙, 개념 영상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수업하였다. 이를 통해 실기과제인 모둠별 배구 경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4. 배구 경기 중계방송

마지막 단계로 배구 이론, 기초기능, 모둠별 배구 경기 등 지금까지 학습한 배구 내용을 기초로 모둠별 배구 중계방송을 준비하고 발표하였다. 배구 경기 중계방송에서 작게는 수업 시간에 배운 경기 규칙 용어와 배구 기초기능 학습 시 손목과 팔의 통증, 팀 전략 등을, 크게는 모둠별 배구 경기에서의 개인 능력보다는 함께 한 모둠의 능력, 경기 중 스포츠맨십 등 학생들이 수업하면서 느낀 점을 배구 중계방송에서 표현하기를 원했다.



▲ 모둠 배구 중계방송 녹화 및 발표

돌아보기 (수업 성찰)

1학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업의 질과 학생들의 참여도는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고민 후 보완하고 적용한 수업에 다시 한번 한계를 느낀다.

첫째,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에 적용할 내용이 더 구체적 이어야 한다는 점

둘째, 체계적이고 구체적일수록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지쳐버린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만 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듣다는 점

셋째, 처음에는 정말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버린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나 혼자 수업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실시간 쌍방향 수업보다는 콘텐츠 및 과제제시형 수업을 하게 된다는 점.

배드민턴 수업 시 땀 흘리는 나의 모습을 통해 정말 열심히 수업했다는 착각에 빠진 적이 있다. 30 명의 학생들과 1대1 수업을 하면서 개인 피드백을 주었다. 혼자 열심히 한 것도 사실이고 학생 입장에서 나와 1대1 활동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외 시간에는 다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두 개 반의 경우 실시간 쌍방향 수업(홈트레이닝, 배구 시 “애들아 나만 하는 거 아니지? 같이 하는 거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을 통해 ‘혼자만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원격수업에서 수업 잘하는 교사보다는 운동장에서 수업 잘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 예전처럼 마스크를 벗고 운동장에서 함께 뛸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변형게임을 활용한 즐거운 체육수업 만들기

글.

전북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교사
정현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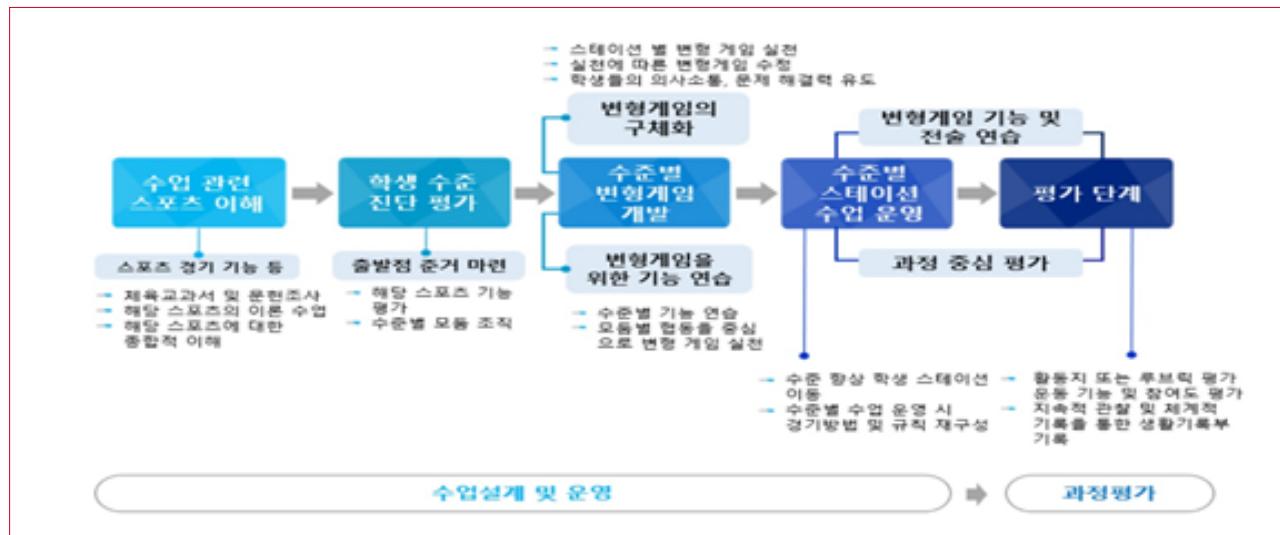
▲〈그림 1〉변형게임의 이론적 배경

1. 변형게임의 이해

체육수업을 운영하며 늘 고민하는 내용 중 하나는, 학생은 스포츠 경기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러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기술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 자신의 흥미와 운동 기능에 따라 참여하며 공동의 목표가 비슷하기 때문에 학생 간 기능 차이로 인한 한계가 체육수업보다는 비교적 적게 나타난다.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은 개별적인 체격과 체력, 그리고 운동 능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스포츠 경기, 즉 게임하기를 즐거워한다. 많은 교사가 체육수업 운영 시 간이게임 혹은 변형게임을 활

용하는 이유도 많은 학생이 수준에 맞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교사는 과거 학생 수준에 맞는 변형게임을 위해 용·기구의 변형, 경기 방법 및 규칙의 변형, 운동 기능 범주화에 따른 미니 게임 등을 실시해본 경험이 있다. 그러한 교사의 노력은 학생이 흥미를 가지고 게임에 참여하며 다양한 성공 경험을 갖게 한다. 변형게임이란 학습자들이 해당 스포츠 게임에 원활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환경 및 여건을 변형하고 경기 방법 및 규칙을 간소화하거나 변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는 체육수업 시 변형게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실제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며 평생체육으로의 연계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대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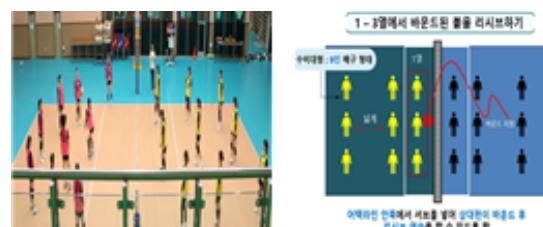
2. 변형게임을 활용한 수업 사례



▲〈그림 2〉변형게임을 활용한 수업 설계



배구의 역사와 배경 등을 이해하며 배구 운동 기능에 대한 진단 평가를 실시한다. 진단 평가를 통해 배구 기능을 중심으로 모둠을 구성하여 변형게임을 개발하도록 안내하거나 혹은 교사가 제시한 변형게임에 학생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사는 배구 기능을 서브, 언더핸드 패스, 오버핸드 패스 등을 세분화하며 전이성과 확장성을 중심으로 변형게임을 새롭게 구상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학생은 교사의 안내 혹은 모둠별 조장의 안내에 따라 변형게임을 중심으로 배구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교사는 변형게임을 수업 초기 교사가 주도성을 가지고 수업에 활용하지만 이후 수준별 모둠으로 구성된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변형게임을 직접 제작하고 실천해 볼 수 있다. 변형게임을 통해 학생의 발달성, 계열성, 전이성을 중심으로 교육적인 의미가 담길 수 있도록 조직할 수 있다.



변형게임의 세부적인 운동 기능을 기준의 평가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실제 변형게임의 수행 구성요소를 관찰하며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변형게임의 개발과 참여 과정을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기록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그림 3〉 배구 변형게임 및 변형게임 만들기(스포츠)를 활용한 수업 사례

변형게임 내용		
줄넘기 변형게임	줄넘기 미션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넘기의 기본 기능과 모둠원 간 책임감과 협동심 향상 유도 - 반 전체 학생을 4인 1조 모둠 구성 - 모둠별 4명의 미션 순서 정하기 - 모둠발 뛰기 10회, 2단 뛰기 10회, 가위바위보 뛰기 5회, 옆으로 흔들어 뛰기 등 모둠 숫자와 기능 수준에 따라 다양한 미션 정하기 - 모둠별 시간을 측정하여 모둠별 순위 결정
	줄넘기 이어달리기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넘기의 기능 연습을 토대로 모둠별 팀워크 향상 유도 - 반 전체 학생을 4인 1조 모둠 구성 - 모둠별로 4명의 이어달리기 순서 정하기 - 양발 모아뛰기, 양발 모아 거꾸로 뛰기, 한발로 뛰기, 구보로 뛰기 등 다양한 줄넘기 형태와 거리를 조절하며 경기 방법 및 규칙 정하기 - 줄넘기 하나를 바톤으로 정해 이어달리기 실시
음악줄넘기 변형게임	박자 맞춰 동작 바꾸기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줄넘기 박자에 맞춰 게임을 통해 기본 기능 연습 유도 - 반 전체 학생을 4인 1조 모둠 구성 - 모둠별 자유롭게 음악 선정 - 처음 32박자를 모둠원 똑같이 모둠발로 뛰기 - 이후 8박자마다 다양한 줄넘기 동작을 정한 뒤 음악에 맞춰 실시 - 모둠별 모두가 미션 성공 혹은 시간을 측정하여 순위 결정
	대형 옮기기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넘기 기능 향상과 음악줄넘기 대형 연습 유도 - 반 전체 학생을 5인 1조 모둠 구성 - 모둠별 자유롭게 음악 선정 - 모둠별 음악에 맞춰 줄넘기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W-O-M-십자가 대형에 대한 연습 실시 - 모둠별 연습 후 발표 - 대형에 대한 정확성, 협동성, 적극성, 기술 나이도에 대한 동료평가 점수로 순위 결정

▲〈표 1〉 음악줄넘기 변형게임 사례

3. 변형게임을 활용한 체육수업의 교육적 의미

학생은 스포츠에 대한 역사를 시작으로 운동 기능과 전술 등을 탐구하고 이해하며 변형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학생은 스포츠 원리를 이해하게 되며 실제 모둠별 변형게임을 참여하거나 창의적으로 만들어봄으로써 그러한 실천 과정에서 스포츠 원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생 수준에 맞는 변형게임은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성공 경험을 갖게 하고 그러한 성공 경험은 스포츠에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쌓게 하여 적극적으로 체육수업에 참여케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학생은 수준별 변형게임 활동을 통해 교사와 학생, 학생 간 다양한 소통과 문제해결 등을 통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교사

는 이러한 모든 과정에 대한 평가 준거를 제작하고 적용하여 실제 평가에 운영할 수 있으며 과정에 대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학생은 변형게임에 꾸준히 참여하며 운동기능을 향상함으로써 정식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변형게임은 결국 정식 스포츠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활동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실제 스포츠 참여는 학생이 성인이 되어 평생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금도 많은 교사들이 수업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체육교사들의 다양하고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이 미래의 학교체육 변화는 있어도 변함없는 발전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해본다.

코로나19 체육수업에 대한 학생의 바람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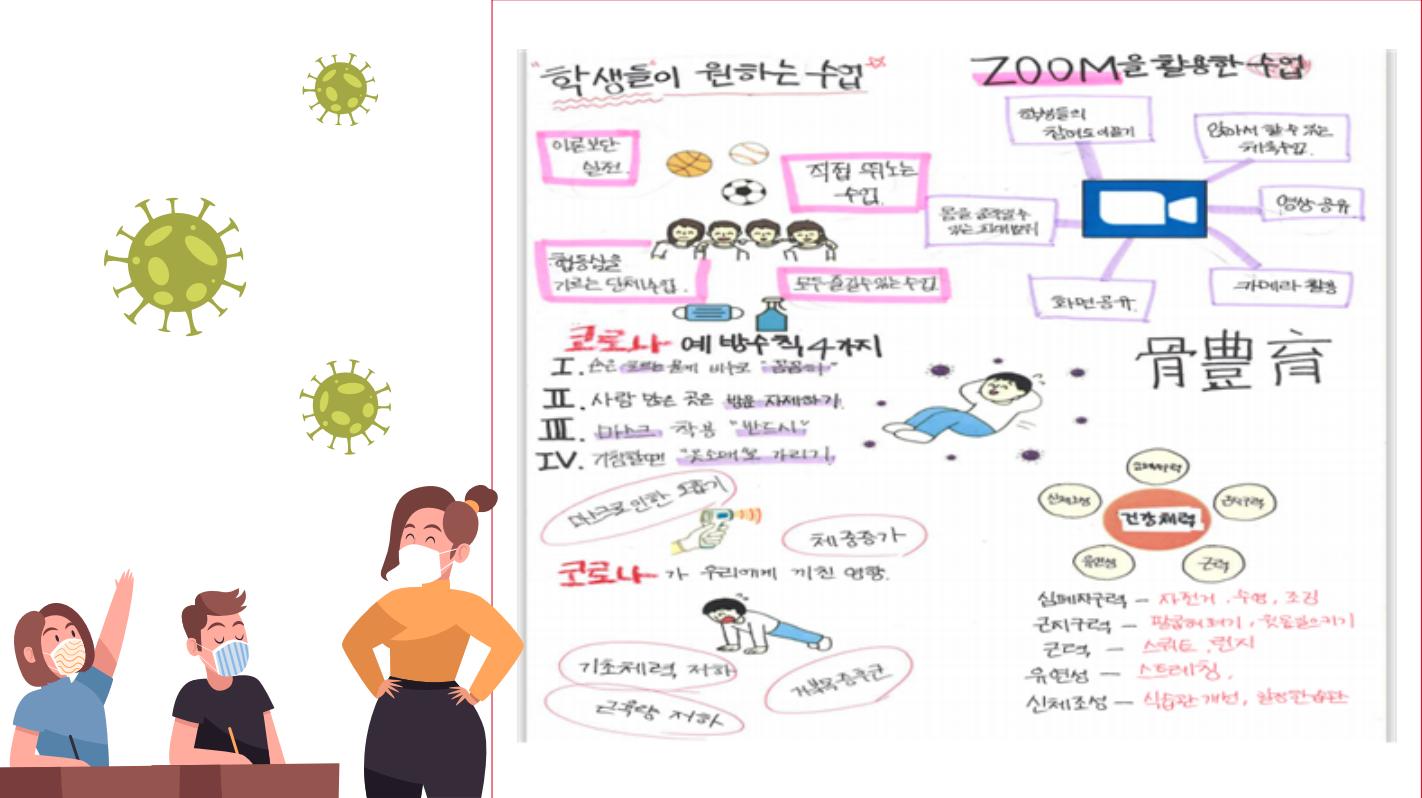
망포중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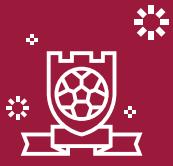
김선진

저는 체육수업을 너무나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사라지는 대면 수업들과 제한적인 활동만을 하는 체육수업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는 구기 종목을 좋아해서 체육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며 친구들과 빨리 가까워지는 편입니다. 코로나19가 심해지는 가운데 줌을 이용한 수업들이 많아지면서 체육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수업을 듣고 이론에 치중하는 수업이 많아 지루했고 이러한 수업이 체육수업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보다 활동이 적다 보니 기초 체력이 줄어들고 그나마 몸을 움직일 수 있던 시간이 줄어들면서 기초 체력과 운동 능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저의 생각은 코로나19가 종식된다는 가정하에 학생들이 기초 체력을 상승시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 시간을 이용하여 혼자 스트레칭을 하고 자신의 체력을 기르는 맨몸운동이나 코로나19 기간 떠오르는 트렌드였던 홈트레이닝을 시도하는 등 혼자서 운동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률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소식을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체육수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활짝 웃고 가끔은 부딪히고 땀도 흘리며 체온을 나누는 그러한 체육수업을 하루빨리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생각들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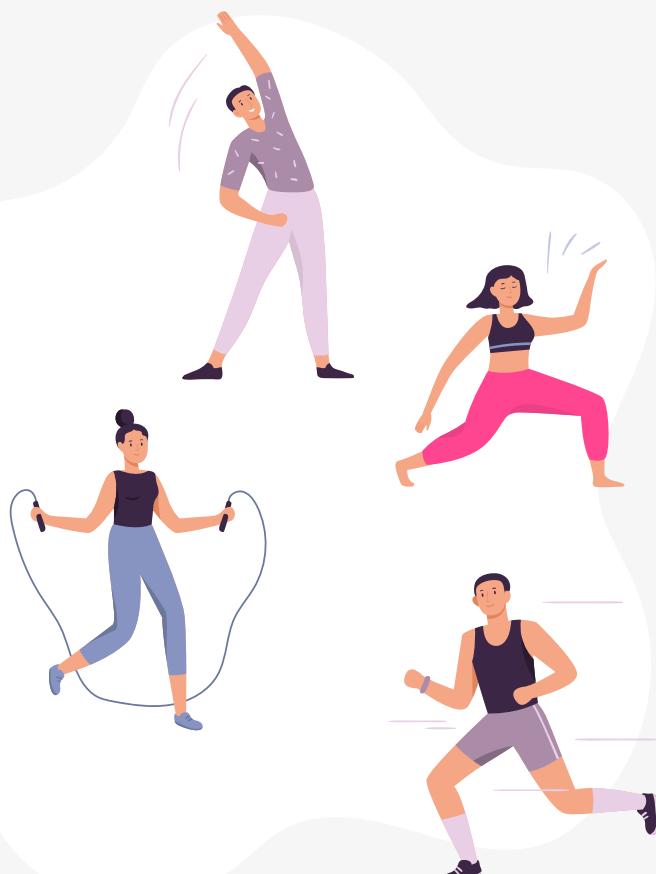
2020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12회까지 이어진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2020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최 2020.11.16.(월) ~ 12.12.(토)

「2020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요

- (기간) 11월 16일(월) ~ 12월 12일(토)
 - (운영 방법) 참가학생이 종목별 수행 영상을 누리집 또는 응용프로그램(앱)으로 제출
 - (개최 종목) 농구-자유투, 제기차기, 줄넘기 등 15개 종목
- ※ 예선 없이 본선만 진행하는 종목(9종목)과 예선 후 실시간 본선 경기를 진행하는 종목(6종목)으로 구분 운영
- (주최/주관) 교육부 / 시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회



교육부와 학교체육진흥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을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참가 학생들은 종목별 경기 요강에 따라 종목별 수행 영상을 촬영하여 누리집 또는 응용프로그램(앱)으로 제출하여 심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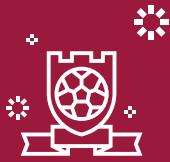
이번 비대면 전국 축전은 학생 스스로 연습하여 수행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운동을 실천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종목별 참가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순위를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신체활동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비대면 전국 축전은 농구(자유투)를 포함하여 15개 종목을 운영하였으며, 전국에서 2만 4천여 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참가했다.

연번	종목	세부종목	내용	측정
1	농구	자유투	연속으로 자유투를 실패할 때까지 실시	성공 횟수
2	민속 운동	제기차기	복숭아뼈 아래 발 부분을 이용하여 제기차기 실시	성공 횟수
3	배구	Wall pass (언더 & 오버 토스)	1분간 언더 및 오버 패스를 교대로 Wall pass 실시	성공 횟수
4	배드민턴	(초등)셔틀콕 토스 (중·고등)벽 치기	(셔틀콕 토스) 1분간 제자리 토스 실시, (벽 치기) 30초간 벽 치기 실시	성공 횟수
5	스포츠 스태킹	사이클스태킹	스포츠스태킹의 사이클 종목을 실시	소요 시간
6	육상	왕복달리기	정해진 거리를 2회 왕복달리기 실시	소요 시간
7	저글링	3볼 캐스케이드	신호음에 따라 3볼 교차 저글링을 실시(10초)	성공 횟수
8	줄넘기	이중 연속 뛰기	이중 뛰기(30초) 종목을 실시	성공 횟수
9	체력	매달리기(여)	턱이 철봉 위에 위치한 상태에서 시간제한 없이 매달리기 실시	소요 시간
10		버피텐	버피테스트를 규정된 순서대로 10회 연속하여 실시	소요 시간
11		턱걸이(남)	무반동 턱걸이로 시간제한 없이 실시	성공 횟수
12		플랭크	정확한 플랭크 자세를 유지하며 시간제한 없이 실시	소요 시간
13	축구	리프팅	30초간 팔과 손을 제외한 신체를 사용하여 리프팅을 실시	성공 횟수
14	티볼	포구	1분 동안 벽에 공을 던져 튀어나온 볼을 글러브 포구 실시	성공 횟수
15	표현	치어리딩	치어(챈트), 댄스, 텁블링, 점프 & 림을 경기규정에 따라 실시	성공 횟수

15개 종목 중 줄넘기, 저글링 등 6개 종목은 예선 결과에 따른 시도별 상위기록 학생들 대상으로 12월 19일(토)에 본선 경기를 실시하였고, 이를 교육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School Sports Club 2

2020 용인 학교스포츠클럽 온라인 챌린지



확찐자 구제를 위한 – Stay at Home Challenge

아이들은 스포츠를 통해, 자신을 비우는 것이 협동의 기본이며 규칙이라는 질서를 지키는 것 이 공평함의 근본이라는 것을 몸으로 배운다. 그래서 체육 활동 공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교실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수업에 학생들의 체력건강 저하 및 신체활동 욕구에 대한 학교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실천, 비대면 스포츠클럽 축제 전환으로 뉴노멀 스포츠 생

태계를 실현하기 위한 용인 학교스포츠클럽 온라인 챌린지 가(부제 : 확찐자 구제를 위한 Stay at Home Challenge) 2020년 2학기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구 분	내 용
대회명	2020 용인 「학교스포츠클럽 온라인 챌린지」 – Stay at Home Challenge
참가대상	용인시 초·중·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학생
대회기간	2020년 10월 12일(월) ~ 2020년 11월 20일(금) ※종목별 상이
주최/주관	용인교육지원청
대회장소	학생 개인별 참가 장소(학교, 가정 등)
운영 종목	초-5종목, 중-7종목, 고-7종목

◇ 운영 종목 : 총 9종목

학교급	초 : 5종목	중 : 7종목	고 : 7종목
운영 종목	탁구, 티볼, 킴볼, 홈트레이닝, 저글링	축구, 탁구, 농구, 배드민턴, 홈트레이닝, 저글링, 스포츠 중계방송	축구, 탁구, 농구, 배드민턴, 홈트레이닝, 저글링, 스포츠 중계방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종 목	구 분		참가인원	종 목	구 분		참가인원	종 목	구 분		참가인원	
	남	여	혼성		남	여	혼성		남	여	혼성	
탁구			○	1명,2명,3명	축구	○		3명	축구	○		3명
티볼			○	남7명, 여3명	탁구	○	○	4~8명	탁구	○	○	4~8명
김볼			○	4명 이상	농구	○	△	5명	농구	○	△	5명
홈트레이닝			○	1교 2팀	배드민턴	○	○	남2, 여2	배드민턴	○	○	남2, 여2
저글링	○	○		2명	홈트레이닝		○	1교 2팀	홈트레이닝		○	1교 2팀
					저글링	○	○	2명	저글링	○	○	2명
					스포츠	○	○	1명, 2~3명				
					중계방송							

이번 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한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중등 교육지원과 이진원 장학사는 이번 대회 운영 특징으로 첫째, (온라인 참가) 온라인·비대면 참가를 원칙으로 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스스로 개인이 연습하고 참여 가능한 종목으로 구성한다. 둘째, (영상 활용) 모든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는 영상 제출로 실시하며 각 종목별 영상은 교육지원청 스포츠 홍보 영상으로 제작·활용한다. (대회 운영 지원) 교육지원청 대회 방침과 종목 선정 등의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교사 리그지원단은 대회 운영을 주관하며 지원

한다. 넷째, (플랫폼 활용) 온라인 대회 운영을 위해 종목별 각각의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대회 참여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다. 다섯째, (안전한 스포츠활동) 학교에서는 참가 학생들의 연습 및 촬영 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사고 대비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교육을 강화한다. 끝으로, (스포츠 축제의 장(場)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제한의 기회를 온라인으로 옮겨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축제의 장(場)을 제공한다.

◇ 종목별 참가 현황(팀)

학교급	킨볼	티볼	홈트레이닝	탁구(학교)	탁구(가족)	저글링	축구	농구	배드민턴	스포츠중계방송	총 참가팀
초				47	14	34	729
중				35	.	199	16	65	27	27	385
고				22	.	78	12	22	26	7	175
합계	155	473	30	104	14	311	28	87	53	34	1,289

◇ 종목별 실시 영상



▲ 홈트레이닝



▲ 저글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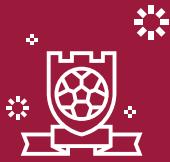
▲ 스포츠 중계



▲ 종목별 운영교사 영상 확인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나 가정에서 신체활동이 위축되어 생기를 잃어버린 학생들에게 이번 용인 학교 스포츠 클럽 온라인 챌린지는 학생들의 건강한 청소년 스포츠 문화 조성, 온라인 학교체육 활동을 통한 뉴노멀 스포츠 생태계 실현, 학교체육-생활체육-평생체육의 선순환적 체육 시스

템 구축, 스포츠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 공감대 확산,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학교스포츠클럽 문화 구축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속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다수의 확찐자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한 뜻깊은 대회였다.



0교시 학교스포츠클럽

‘모닝스파크’

_ 충남 삼성고등학교 교사 이설



1. 코로나19 이전 운영방식

1) 0교시 학교 스포츠클럽 ‘모닝스파크 운영’

- ① 운영 시간: 매일 06:40 ~ 07:30
- ② 운영 프로그램: 1,500m 인증제, 유산소 훈련, 체조 및 스트레칭, 인성교육 체력인증서 발급(문체부)
- ③ 운영 중점내용: 심폐 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및 달리기 능력 향상

2) 1인 1기 체육

- ① 운영 시간: 월, 수, 금 16:50 ~ 18:10
- ② 운영 프로그램: 무도(검도, 유도, 태권도, 펜싱), 스포츠(농구, 라크로스, 육상, 역도, 보디빌딩, 복싱, 미식축구, 플래그풋볼, 탁구, 배드민턴, 족구, 축구, 사격)
- ③ 대회 참가: 교육감배 스포츠클럽 대회, 종별선수권대회, 클럽 동호인대회 등

3) FB 리그

- ① 운영 시간: 토요 스포츠클럽으로 운영 13:00 ~ 17:00
- ② 운영 프로그램: 교내 축구, 농구 리그
- ③ 운영 중점내용: 학급 전원이 선수로 참석, 자율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지원팀 운영, 체육 계열 졸업생 인턴 제도 도입, 대회 STAFF 활용 등

4) 동아리 및 방과 후 수업

- ① 운영 시간: 화, 목 16:50 ~ 18:20

	월	화	수	목	금	토
모닝스파크 (필수)	학교스포츠클럽 0교시 체육활동 육상 ‘모닝스파크’ (06:40 ~ 07:30)					
토요 스포츠클럽 (필수)		10월 플레이오프 저녁 시간	10월 플레이오프 저녁 시간	10월 플레이오프 저녁 시간	11월 말 7교시 결승전	3~10월 교내 축구, 농구 리그
방과 후 1인 1기 (필수)	라크로스, 농구, 탁구, 육상, 검도, 유도,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농구, 탁구, 미식축구, 검도, 유도		라크로스, 농구, 펜싱, 역도, 사격, 보디빌딩, 복싱, 태권도	대회 참가
방과 후 수업 및 동아리 (선택)		무도 동아리 체대 입시 방과 후 수업 기초체력교실		배드민턴, 족구 여자축구, 핸드볼, 심판 교육		대회 참가

1. 코로나19 이전 운영방식

실질적인 운동기능과 체력이 향상되는 스포츠클럽 원격수업으로 도전하다.

매일 아침 6시 40분에서 7시 30분까지 모닝스파크라는 아침 운동을 한다. 모닝스파크에서는 교장선생님과 체육선생님 6명이 모두 나와, 맞이 인사 후 준비체조와 스트레칭,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된다. 모닝스파크는 삼성고 힘의 원천이자 하루일과의 시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체육수업 위계의 시작이다.

학생들은 교사 6명의 지도에 맞춰 1,500m 달리기, 하버드 스텝, 사이드스텝, 셔틀런 등의 훈련을 해야 하고, 1학년 전교생이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 3차에 걸친 1,500m 인증 제를 통과해야 하는데 남학생의 인증기록은 6분, 여학생의 인증기록은 7분 30초이다. 2019년도에는 학생의 50%가 1,500m 인증을 통과하는 기염을 보여주었다.

또한 모닝스파크를 이수하지 않으면 본교에서 수여하는 디플로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생활습관 중 가장 중요한 인사 습관, 건강 습관, 자기관리 습관을 이 모닝스파크를 통해 길러내고 있다.

하지만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6년간 진행되었던 모닝스파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체력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삼성고의 큰 대전제가 흔들릴 위기였다. 젊고 열정적인 본교 체육선생님들은 겨울방학 동안 회의를 하며 다가올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대한 교내에서 진행되었던 것처럼 하려고 여러 방안을 연구해 보았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이었지만 새로운 도



▲ 모닝스파크 등교 개학 후 진행 모습

전의 기회로 생각하였다. 강한 체력이야말로 학생들이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 도전은 3월 23일 ~ 4월 3일까지 시범적으로 과제형 모닝스파크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카메라 앞에서 시간을 인증한 후 체조를 하고 영상을 찍어서 제출한다. 아침체조는 삼성고등학교 스포츠과학센터 유튜브를 개설하여 모든 체육활동에 대해 영상을 올려두었기 때문에 가볍게 따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였다. 4월이 지난 후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예상하고, ZOOM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아침 운동을 계획하였다. 학교에서 진행되었던 것처럼 4가지 종목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정, 체육선생님 1인당 2개 학급씩 임시 담임을 맡아 태블릿 6대로 370명을 매일 아침 만날 수 있었다. 실내용 버피테스트를 개발하고 근력 위주의 프로그램 비중을 높였다. 선생님 3명이 카메라 앞에서 시범을 보이고 선생님 2명이 6개의 태블릿 앞에서 학생들을 실시간으로 지도했으며 선생님 1명은 방송실에서 오퍼레이팅을 하였다.



▲ 모닝스파크 쌍방향 ZOOM 진행 모습

격주 등교와 전원 등교를 거쳐서 학생들은 쉽 없이 참가할 수 있었고 체력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원천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물론 우리가 추구했던 강한 유산소 운동 능력, 심폐 지구력의 향상은 아쉽지만, 그 대신 밸런스와 근력, 유연성은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지닐 수 있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 1인당 143시간이라는 0교시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보여준 삼성고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신의 한 수’는?

글.

KBS 스포츠국장
정재용



최숙현 선수가 끔찍한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전 국민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은 스포츠계의 폭력 근절을 주문했다. 그에 앞서 쇼트트랙 조재범 코치의 선수 성폭행 사건 때도 전 국민은 경악했다. 그때도 대통령은 스포츠계의 성폭력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그리고 프로배구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사태가 겉잡을 수 없는 ‘스포츠계 학폭 파문’으로 이어지는 지금, 대통령은 또다시 스포츠계 폭력을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쯤 되면 거대한 미스터리다. “도대체 스포츠계의 폭력은 왜 끝없이 반복되는가?” “근본적 대책은 정말 없는 것인가?” 국민은 묻고 있고 답을 원하고 있다. 명쾌한 답변을 하자면 ‘폭력이 반복되는 이유는 공부는 포기하고 운동기계만 양산하는 한국 학교체육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고 ‘근본적 대책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교체육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대책이 나왔고, 관련 기구들도 만들어졌고, 관련법도 제정됐다. 실제로 변화도 있었다. 체육특기자 최저학력제도를 명시한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됐고, 대학스포츠협의회(KUSF)가 출범한 뒤 최저학점을 받지 못하면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규정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 초중고 학생선수들의 학사관리를 담당할 학교체육진흥회도 출범했다. 또 체육특기자 대학 진학 비리의 원천인 사전 스카우트도 금지됐다. 수업 결손을 최소화한 고교주말리그 제도도 일부 도입됐다. 학교운동부 재정도 공식 회계에 포함되면서 상당히 투명해졌고, 폭력의 온상으로 지목되던 합숙소

운영도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복잡하게 얹힌 스포츠 현장의 세부적인 문제를 한번에 모두 풀어낼 수는 없다. 엘리트 스포츠 경기인들은 개혁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변화의 과정에서 엘리트 스포츠가 완전히 소멸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개혁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과도하게 복잡하기도 하고 동시에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갈등을 유발한다. 실제 현장에서 추진되는 개혁은 최대한 단순해야 한다.

스포츠 개혁의 핵심 키워드를 간단히 정리한다면 ‘대학입시’와 ‘경기 방식’이다. 조금 설명을 붙이자면 ‘투명한 체육 특기자 대학입시’와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는 종목별 경기 방식(주말리그)’이다.

축구가 성공모델이다. 축구는 이미 근본적인 개혁의 길에 들어섰다. 축구인들 스스로 주말리그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경기 분석 데이터를 입시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대학입시의 불공정성 역시 최소화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와 대학스포츠협의회의 등 외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냈다.

스포츠 개혁 성공의 핵심은 강요가 아닌 자발성과 개별성이다. 엘리트 체육인들 스스로 개선책을 만들도록 지원하되, 일괄 추진이 아니라 개별 종목의 차이를 인정하고 종목별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종목별 주말리그 공모제’를 실시해야 한다. 기본 방향만 정해준 다음 종목별로 경기인들 스스로 만든 경기방식을 투명하게 평가한 뒤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해줌으로써 자발적 성공모델을 확산시켜야 한다. 그렇게 합의된 종목별 ‘경기 방식’이 ‘대학입시’에 반영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과정 역시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산 지원을 유보하되 충분히 시간을 두고 기다려줘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고 경기인들은 스스로 개혁을 선택한다.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스포츠계의 개혁은 바로 이 원칙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스포츠계의 폭력도, 비리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종목별 주말리그 공모제’가 근본적 스포츠 개혁을 위한 ‘신의 한 수’가 되길 기대한다.

코로나 속 학교운동부 - 풍덕중학교 양궁부

글.

순천풍덕중학교 교사
조예진



2020년은 강력한 팬데믹 현상인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침을 만들었고, 학교에서는 교육부 지침을 따라 등교 인원을 조정하고, 원격수업을 최초로 도입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애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학생선수들은 자신의 진학과 진로를 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 학교 운동부 학생들은 동계훈련을 중단하고 훈련을 쉬어야만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어 학교운동부 운영에 어려움이 따랐지만, 학교장의 승인과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3월부터 개인 활(화살 제외)을 집으로 가져가서 당기기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간의 훈련 방법은 지도자 선생님께서 일일 및 주간 훈련계획을 양궁부 학부모 밴드 및 학생들 개인 메신저로 공지해 주었고, 아이들은 기초자세, 체력 보강훈련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지도자 선생님께 전송하였습니다.

등교 이후에는 방역지침을 지키며 정상적으로 운동부를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8월 초, 갑작스러운 지역 확진자 증가로 인하여 순천 내 모든 학교가 3주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양궁부는 온라인 수업 기간에도 효율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 후 ZOOM을 활용한 1:1 맞춤형 개인 훈련을 실시하였고, 학생들의 건강 상태 파악 및 훈련의 성과를 점검하였습니다.

1:1 맞춤형 개인 훈련은 단체 훈련 때는 발견하지 못한 학생의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즉각 피드백하여 운동의 효

율성을 높였고,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훈련을 받지 못해 불안해하시던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덜어드렸습니다.

다시 학교에 등교하였을 때 학생들은 활쏘기 훈련을 어색해하였으나, 온라인 수업과 ZOOM을 통한 기초자세,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 덕분에 금세 활쏘기 훈련에 적응하였습니다.

양궁부 훈련 시에는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운동부 운영지침에 따라 운동 전, 후 수시 열 체크 및 건강 상태 파악, 손 소독제 사용, 학생 선수 간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활 쏘는 시간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하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훈련에 임하였습니다.

대회들이 취소되고, 오프라인 훈련이 잘되지 않아 학생 선수들의 양궁에 대한 열정이 조금 흐려질 때쯤, 전국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양궁부는 학교장, 학부모,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 전국대회 출전을 결정하였습니다.

전국대회 출전 시 전라남도교육청 지침인 2인 1실 숙소 배정, 일일 건강 상태 체크, 대회 출전 후 5일간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였고 양궁 시합 출전 2주 전부터 이동 동선, 발열 체크를 하여 협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경기장에서도 당일 이동 동선 제출 및 발열 체크를 실시하며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대회 이전 학생선수 관리 및 대회 운영진의 철저한 방역 조치 덕분에 대회가 무사히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출전에 대해 망설였으나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운동에 대한 동기유발과 목표 의식을 더욱 고취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며 운동부를 운영한다면 지금처럼 코로나19 확진자 없이 양궁부가 잘 운영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애써주신 모든 지도자 선생님들, 감독 선생님들, 교육청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학교체육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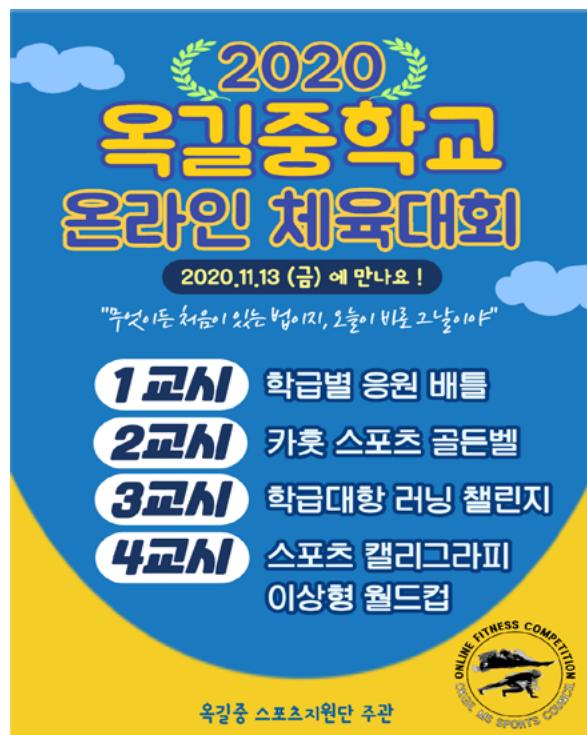


비대면 체육대회

학교체육 활동 - 01

글.

경기 옥길중 교사
권용호



1. 코로나19가 집어삼킨 학교 스포츠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도의 많은 학교 스포츠 이벤트 (교육과정 외 스포츠클럽 및 체육대회)가 축소되거나 취소 됐다. 매년 학생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준비했던 과정이 큰 힘듦이자 기쁨이었던 내게 2020년 체육대회의 개최 여부는 커다란 고민이었다.

체육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동료 체육 교사들과 회의를 했고, 코로나라는 상황임을 고려해 규모를 축소하되, 온라인 형태의 운영에 도전해보기로 가닥을 잡았다.



**온라인 체육대회 모형을 디자인할 때,
가장 우선으로 고려했던 부분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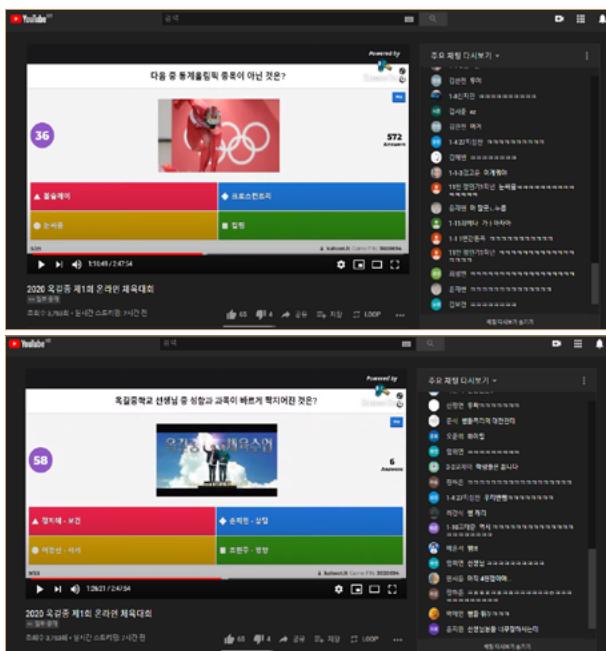


1. 코로나19 변동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
2. 신체활동과 간접 체험 활동의 조화
3.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체육대회를 디자인
4. 학급대항의 형태로 진행
5.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위해 유튜브 Live 생중계 형태로 진행 (스트림 앤드 활용)

2. “무엇이든 처음이 있는 법이지,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온라인 체육대회는 4교시에 걸쳐 진행했는데, 1교시에는 학급별 응원 영상을 사전에 받아 편집하여 유튜브 Live로 생중계하였다. 응원 영상의 길이는 1분으로 제한을 두었고, 영상에 담임선생님들이 함께 출연하시는 경우도 있었다. 응원 영상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과연 영상을 제출하는 학급이 얼마나 있을까?”하고 우려했던 것과 달리 29학급 중 28학급이 영상을 제출해 주었다. 담임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학생들의 참여 덕분이라 생각한다.

2교시 프로그램은 ‘카恚’를 이용한 스포츠 골든벨이다. 전교생 및 교사들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퀴즈 배틀에 참여하는 것을 생중계하는 형태로 진행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 카恚 무료 버전에는 최대 100명까지만 초대가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구매해서 진행했다. 스포츠 골든벨은 스포츠 상식, 스포츠 안전, 학교 관련, 넌센스 문제 등으로 구성했다. 기준 순위를 정하고, 기준 순위에 진입한 학생의 해당 학급에 1명당 +10점을 부여했다.



▲ 스포츠 골든벨 실시간 진행 및 중계 장면 : 유튜브 Live

3교시에는 ‘런데이’라는 어플을 활용한 학급대항 달리기 경기였다. 5일 동안 학급 구성원들의 달리기 기록(km)의 총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는 학급 대항 경기인데, 담임교사도 참가할 수 있었다. 런데이의 ‘커뮤니티’ 기능을 활용하

면 학급 내 구성원의 개인 기록과 학급의 총합산 기록이 자동으로 산출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했다. 런데이 기간 동안 풀 죽어있던 운동장이 잠시나마 살아나고 얼마간 학교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 것 같아 매우 즐거웠고 뿌듯했다.

4교시에는 온라인 체육대회 소감문 및 스포츠 캘리그라피 이상형 월드컵을 진행했다. 소감문은 구글 설문으로 제작했으며 참가 소감 및 느낀 점, 좋았던 점, 불편했던 점,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별점 등을 작성하게 했다.

스포츠 캘리그라피 이상형 월드컵은 교내상 시상에 계획되어 있던 ‘스포츠 캘리그라피’ 대회의 학생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이상형 월드컵’으로 제작한 후, 학생들이 소감문 작성 전 투표를 하면 자동으로 순위가 산출되도록 설계된 사이트이다. 이렇게 되면 작품을 따로 채점하지 않아도 되고, 전교생의 투표를 통하여 순위가 산출되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으며 시상 작품으로 선정된 학생들의 자부심도 드높여 줄 수 있는 효과도 있다.

3. 제1회 온라인 체육대회를 마치며

처음으로 온라인 체육대회를 진행하면서 배운 점과 느낀 점이 많다. 비대면 원격으로 진행되는 행사는 만큼,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되지 않았고, 혹여나 학생들에게 외면받지는 않을까 행사를 준비하는 내내 근심과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행사를 마친 이후에는 뿌듯함과 성취감이 커졌고,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얻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온라인 체육대회는 보다 풍성하고 의미 있게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얻었다.

준비과정에서 개최까지 크고 작은 시행착오들이 많았다. 사소하게나마 동료 선생님들과의 마찰도 있었고, 일부 학생들의 부정행위 및 유튜브 Live에서의 부적절한 댓글 문제, 담임교사들의 어려움 호소 등의 문제들로 곤란할 때가 많았지만 모두 빠짐없이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옥길중에서의 마지막 해를 의미 있게 매듭지를 수 있어 기쁘고 감사했다.



학교체육 활동

체대 입시? 학원 말고 학교에서 ‘끝까지 간다’

글.

충주 국원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체육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체대입시반을 만들어 지도하거나 한 번쯤 지도를 고민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체대입시반 운영은 수업 외 교사의 업무 부담, 실기 측정 장비 마련, 여러 대학의 입시 자료 준비, 강사 수급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원보다 학교에서 더 나은 입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까?’라는 심리적 부담감일 것이다. 현재 체육과를 진학하는 학생들의 상당수는 학원에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공교육 속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체육과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교사와 학생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며 운영되고 있는 충주 국원고등학교의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입학부터 체대 진학을 위한 체계적 입시 지도



▲ 2020년 지역 체육 계열 공동교육 거점학교로 선정



▲ 자율동아리 형태로 2015년부터 체대입시반 운영



▲ 체육 교육과정 학습동아리 교사 연구

2015년부터 운영된 국원고등학교의 체대입시반은 다양한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 사교육 수준의 실기 지도 시간 확보의 문제와 입시 구조의 변화 등에 대한 개선책으로 체육 교과수업을 확대하였다. 일반적인 고등학교와 달리 체육 계열 진로 진학 및 관련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은 진로심화과목을 추가해 3년 동안 20단위 이상의 체육수업을 받을 수 있어 교과전형 및 종합전형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 유리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었다. 또한, 동아리 활동, 방과 후 수업, 체육 계열 집중과정 등을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여 부족한 실기 연습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진로심화

- 체육 탐구(주당 3시수) -2학년 수업 /
체육 +다학문(역사, 생물, 물리 등)
- 체육 전공 실기 기초(주당 2시수)-3학년 수업 /
체육 수행능력 심화, 체력 및 전공 실기
- 공동교육과정(주당 2시수)-1,2,3학년 통합 수업
/ 전문교과 운영 체육대학 입시 실기

실기 연습 시간 확보와 종합전형 준비를 위해 교내 교육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

STEP
1



자율동아리 및 창체동아리 구성(2015년 – 2019년)

자율동아리 '끝까지 간다'와 창체동아리 '체육 계열 준비반' 구성 실기 연습, 학술 제 준비, 체육 행사 준비, 체험 등의 활동을 함.

STEP
2



스포츠클럽 활동

점심시간과 주말을 활용해 진행, 학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개설하고 운영함.

STEP
3



체대 입시 방과 후 수업

1회 70분, 주 2~3회 운영하여 강도 높은 훈련과 체대 입시에 필요한 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를 진행함.

STEP
4



공동교육과정(2018년~)

2018년 2학기부터 지역 간 공동교육과정에서 전문교과를 통한 진로를 준비함.

STEP
5



체육 계열 집중과정(2020년~)

2020년 2학기부터 체육 계열 공동교육 거점학교로 선정되면서 더욱 연계성이 강화된 전문적인 수업이 가능해짐.



이러한 국원고의 활동이 충주 지역에 크게 홍보되면서 지역 사회로 확산되었다. 2018년부터는 지역 단위의 수업을 개설하여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수용하여 가르칠 수 있는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개설하였다. 또한, 2020년에는 지역 체육수업 연구회 교사들을 중심으로 체육 계열 진로 진학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자료집 제작과 진로 진학 공부를 함께 하였고, 8월에는 지역에서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진학 집중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였다.



▲ 참여 학생, 교사 만족도 높아 지역 사회로 확산 지역 체육 교사 진로 진학 연구모임, 재능기부 공교육 속 체육과 진로 진학의 희망

국원고의 체대입시반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며 자신들이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체육 계열 공동교육 거점학교로 선정되면서 예산지원을 통해 시설과 장비, 강사비 등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공동교육과정, 체육 계열 중심과정 등을 통해 기존 방과 후 형식의 운영에서 탈피하여 연계성 있는 수업이 가능해졌다.

2020년 코로나19는 체육수업뿐만 아니라 입시체육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도 큰 과제였다. 방역을 이유로 많은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이 제한되어 많은 학생들을 학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국원고도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활동이 축소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입시를 준비하였다. 국원고 박현식 선생님은 체대입시반을 운영하면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체육 교사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며, 전문교과를 통한 체육수업 내실화로 학생들이 진로 진학에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 공교육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고 한다.



체육 계열 집중프로그램 활동 영상 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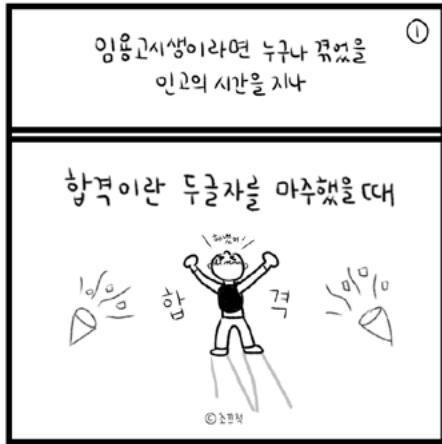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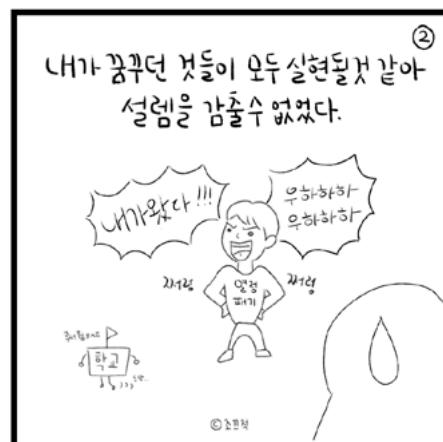
- 설명회: <https://www.youtube.com/watch?v=fsoqz796bJw>
- 실기활동: <https://www.youtube.com/watch?v=1OhsKaNu66k&t=4s>

학교여, 내가 왔다.

글/그림. 조고적

신규교사 A 씨는 2년간의 재수 생활 끝에 ‘합격’ 2글자를 확인하고 체육 교사의 목표를 이룬 순간을 만끽했다. 오랫동안 체육 교사라는 목표를 위해 달려온 그는 신규교사가 되면 펼쳐질 모습들을 상상하곤 했다. 학생 DJ가 선정한 트렌디한 K-팝이 흘러나오는 체육관에서 모두가 함께 땀을 흘리고 웃으며 신체활동을 즐기는, 체육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꿀 만한 완벽한 그림의 체육수업. 오피스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학교와 부서에 없어선 안 될 존재로 동료 교사와 관리자, 학부모까지 인정하는 유능한 교사의 모습. 학교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레어’하고 ‘프레시’한 젊고 친근한 체육 교사 곁을 따르는 수많은 아이들의 모습... 연예인과 일반인의 합성어인 ‘연반인’과 같은 체육 교사의 삶을 꿈꿨는지 모른다.

그는 체육몽을 꾸었던 것일까. 2020년 3월, 학생들은 학교에 오지 않았다. 학생들과 북적이며 즐거운 체육활동을 꿈꿨지만,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고 각종 업무에 낮선 단어들과 사투를 벌이며 학기 초를 보내야 했다. 모두가 ‘신규교사’ 같은 심정이었던 2020년. 기대가 커기에 실망이 더 크게 다가왔을 찐 신규교사들은 어떻게 1년을 보냈을까. 신규교사 A 씨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담아 보았다



꿈꾸던 장면 #2
학생들의 관심과 인기를 한몸에 받음.



④

꿈꾸던 장면 #3
좋은 영향력을 가지는 모습



©노한석

⑤

생전처음 듣는 행정용어들은 마치
외계어처럼 낯설게 다가왔다.



©노한석

⑧

또한, 코로나로 인해
인기는커녕 아이들과 친해지기도
힘든 환경이었고 ...



©노한석

⑨

그 러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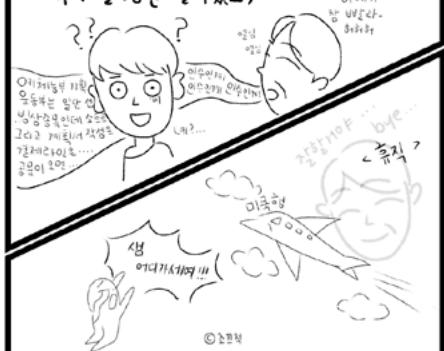


그 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노한석

⑥

하루만에 이루어진 민수인계를 소화해보니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고,



©노한석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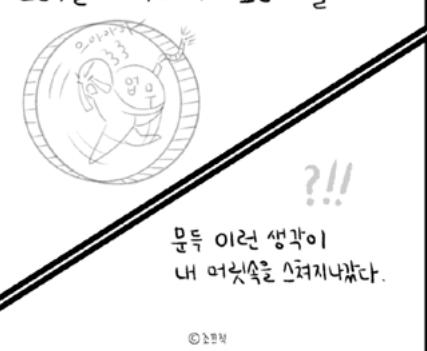
온라인 수업이 시행되며
업무는 더욱 가중되었다.



©노한석

⑩

유독 업무들이 버겁게 다가와
모든 것을 저쳐두고 도망치고 싶던 어느날



문득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쳐지나갔다.

©노한석

(12) 처음은 서툰게 당연하고,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그런 생각.



그렇게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

©조한석

(16) 그 이후 일주일동안 후임자에게
정성껏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조한석

(13) 이후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17) 그동안 나의 신규생활은
잠시 숨표를 찍게 된다.

,

마지막으로 전국의 모든 신규선생님들께
다음과 같은 메세지를 전하고 싶다.

©조한석

(14) 모든게 조금씩
익숙해 질때 까



©조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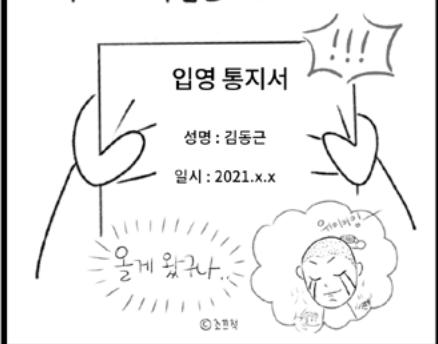
(18) 우리는 충분히 잘해왔으며
앞으로 더 잘해낼거라고,



그리고 우리의 신규시설을 잊지말고
다음신규교사들을 잘이끌어주자고 말이다.

©조한석

(15) 국가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조한석

(19) 그럼 저는
군대 잘 다녀오겠습니다 !! 충성 !!!



©조한석

학교체육진흥회 소식지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11, 7층 나호(철산동, 신안오피스빌딩)

TEL. 02-2633-1026

Homepage. www.cspep.or.kr

편집. 이언영, 조성준, 최우환, 인태용, 전해림, 이정석

디자인 이앤아이월드

www.makebook.co.kr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회

The Council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motion